

## 『씨을』에 대한 해석

『씨을』이란 말은 백성, 즉 하늘에 머리를 둔 민초를 의미한다.  
따라서 씨을여성회는 가장 낮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이다.  
people의 뜻은 우리 자신을 모든 역사적 죄악에서 해방 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격을 스스로 닦아낸다는 의미이다.

『을』 아래아로 사용했던 것은 '알'로 발음한다.  
이 글자 속에 다음과 같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0」은 극대(極大) 혹은 초월적인 하늘을 의미한다.  
「.」은 극소 혹은 내재적인 하늘, 곧 자아를 의미한다.  
「ㄷ」은 활동하며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생명을 상징한다.



## BIỂN

Biển rộng mênh mông như không bến đỗ.

Dòng đời trôi như gió thổi mây bay.

Lắng nghe biển hát trong mênh mang nhớ.

Sóng xô bờ buông nổi nhớ băng khước.

( DINH THI DUONG - 정 다 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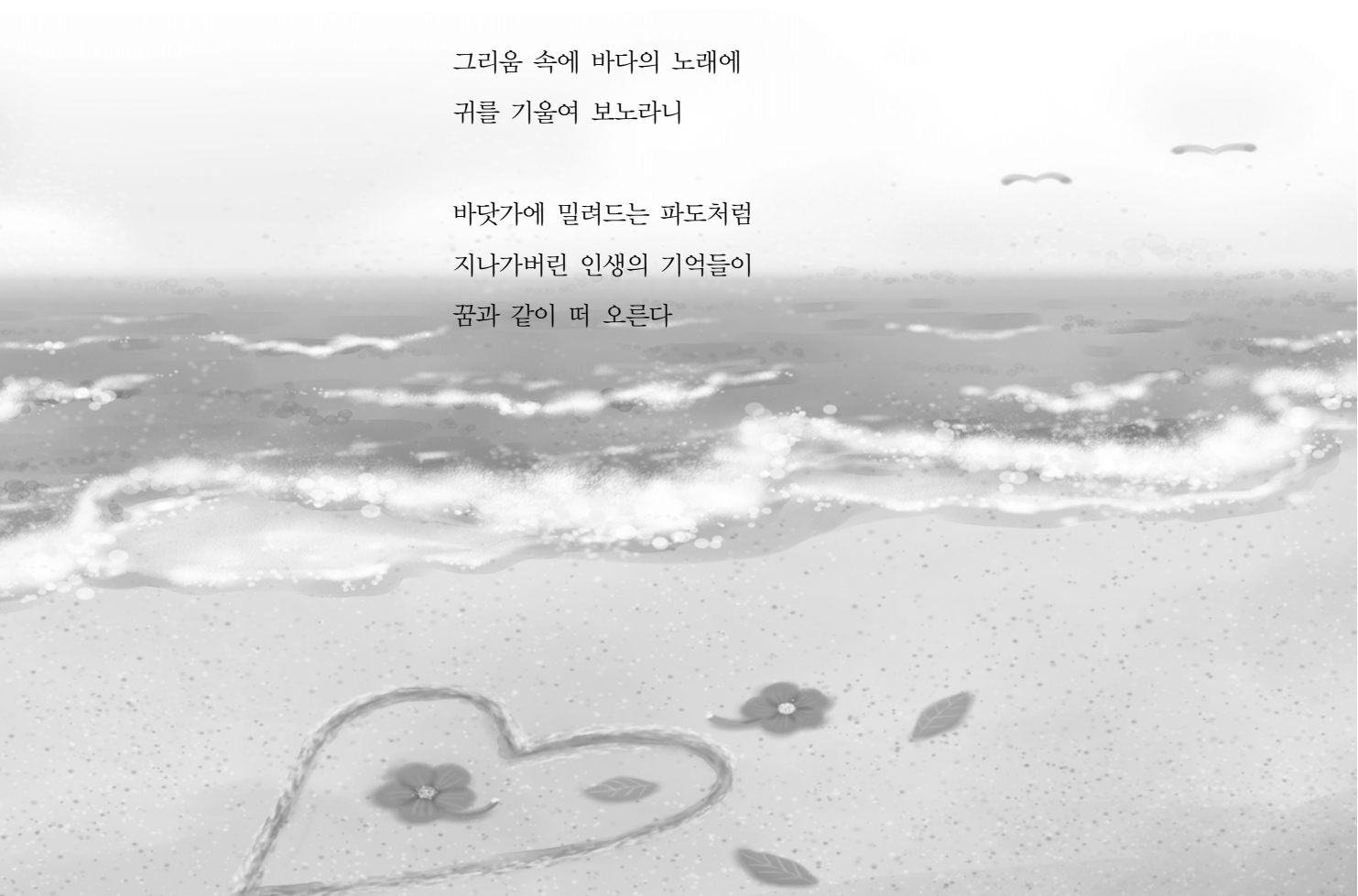
# 바 다

정 다 연 덩티즈영

항구가 없는 듯 거대한 바다위에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버린 나의 인생길

그리움 속에 바다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노라니

바닷가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지나가버린 인생의 기억들이  
꿈과 같이 떠 오른다



## “씨올 여성회는 광주희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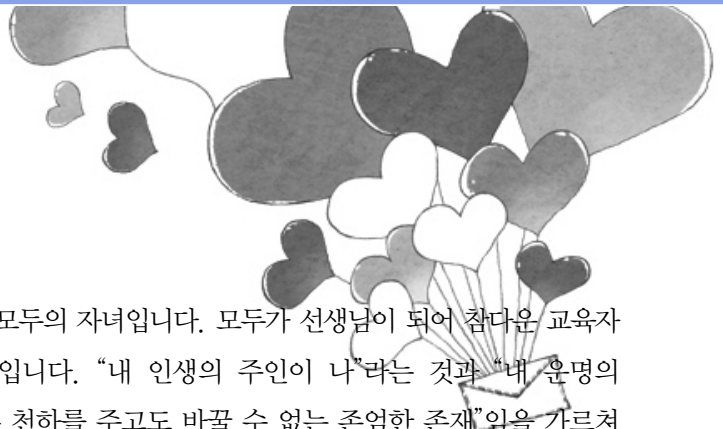
친애하는 광주 주민 여러분 ! 씨올여성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씨올여성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편달을 보내주신 시청 직원님들,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여성정책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옛날보다 살기는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사회가 왜 그렇게 거칠고 험악해져 가는지 심히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가정이 따뜻하고 친밀하고 다정다감한 안식처로서 “도덕의 학교”(페스타로치선생의 말)가 되어야 마땅하고, 또한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스승”(철학자 칸트의 말) 되어야 할 것인데, 물질 위주의 산업사회의 리듬에 맞추어 살기에 바빠서 대화와 소통의 부재는 물론, 가정폭력과 이혼의 급증으로 인한 가정 파괴와, 가정교육의 부재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견잡을 수없이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것처럼 신봉하기를 원했던 성적인 자유의 혁명은 성취도 행복도 가져다주지 못하고 극적인 오류로 치달아 신의 창조의 질서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유 대신에 무수한 상처와 고립된 영혼을 남겨놓았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이 아름답고 신비한 기쁨의 영역이 아니라 좌절과 혼란 절망과 어둠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상대를 가리지 않는 동물적 성행위와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빚어낸 파괴적 참화는 우리를 압담하게 합니다. 정신질환, 자살, 살인, 온갖 폭력, 청소년들의 비행과 난폭한 범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마구 쏟아지는 음란물에 노출되어있는 우리의 자녀들, 무지한 어린애들의 성행위 등등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우리가 택할 필수적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만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것입니다.



우리 뒤에 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 참다운 교육자로 우리의 후손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과 “내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한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존재”임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신성한 신의 축복으로 여성과 남성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합하므로 가슴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 행복한 인생을 공유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근원임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교육은 아기가 태어나 말을 배우면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육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어두운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유해야 합니다. 씨울여성회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광주지역에서 13년간 여러분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왔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자녀들을 불행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상처받고 망가진 영혼들의 치유를 위해 오늘도 우리 씨울여성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주민 여러분!

아무쪼록 부디 씨울여성회를 활용해주시고, 찾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상담하여 주시며 후원으로 지지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씨울여성회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께 호소하며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원 금 자** (씨울여성회 이사, 하늘샘 수도원 원장)

## 여는마당

01. 〈時〉 ..... 정다연(딩티즈영) ..... 2  
 02. 〈인사글〉 ..... 원금자 이사 ..... 4

## 씨을마당

### 03. 사무국

- 〈기획글〉 이기적인 여성은 누가 만드나? ..... 신수아(이화여자대학교) ..... 8  
 〈특집글〉 세계문화유산이 된 남한산성 그 때 있었던 슬픈 이야기 ..... 광라분이 씨을여성회 상임이사 ..... 14  
 〈사회복지실습 후기I〉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라” ..... 임은화 ..... 17  
 〈사회복지실습후기II〉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마치고 ..... 이정은 ..... 17

### 04. 성폭력상담소

- 여기는 상담실입니다 ..... 편집부 ..... 26  
 2014년 하반기 상담통계 ..... 편집부 ..... 27  
 성교육 전문강사 활동을 하다 ..... 김혜경(제13기성교육전문강사) .....  
 성교육 체험관 수업 ..... 배영숙(제11기성교육전문강사) .....  
 〈제회 폭력예방캠페인 초.중.고 그림그리기대회 소감문 I〉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의 꿈을 꾸며 ..... 배지윤(초월중학교 2학년) .....  
 〈제회 폭력예방캠페인 초.중.고 그림그리기대회 소감문 II〉  
 학교폭력, 성폭력 등 다시금 생각하는 ..... 김현채(양벌초등학교 5학년 6반 김진솔 엄마) .....  
 〈제회 폭력예방캠페인 초.중.고 그림그리기대회 소감문 III〉  
 물속에서 열심히 수다중일 물고기들이 ..... 김미숙 (경안중학교 이우진 학생어머니) .....  
 〈하반기 상담소활동〉 ..... 편집부 ..... 38

씨울 여성회는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새 생명을 일궈냅니다

## (사) 씨울여성회

### 05.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

|                              |                        |
|------------------------------|------------------------|
| Xin Chào ! 안녕하십니까!! .....    | 이보은(광주경찰서 근무) .....    |
|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새로운 꿈을 펼친다 ..... | 정다연(딩티즈영, 센터 간사) ..... |
| 〈하반기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 활동〉 .....    | 편집부 .... 51            |

## 참여마당

|                              |    |
|------------------------------|----|
| 06. 씨울여성회 회원소식 .....         | 55 |
| 07. 서가산책 .....               | 57 |
| 08. 2015년 씨울여성회여성회 활동 .....  | 58 |
| 09. 2014년 하반기 후원해 주신분들 ..... | 63 |
| 10. 씨울여성회 하는 일 .....         | 66 |
| 11. 회원가입(양식) .....           | 68 |
| 12. 약도 .....                 | 69 |

펴낸곳 : (사)씨울여성회 / 펴낸이 원금자 / 편집인 곽라분이 / 펴낸날 2015.1  
Tel 031)797-7031 / 홈페이지 : [www.ssialwomen.org](http://www.ssialwomen.org)

| 기획글 |

# 이기적인 여성은 누가 만드나

## ‘정부의 저출산 여성 정책의 한계와 대안’

신 수 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 1. 여성의 현실

회사에서도 육 먹고, 집에서도 육 먹고 직장 다니는 여성이 일과 양육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육아 또한 함께 진행하는 것, 혹은 결혼을 하지 않고 1인 가정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그 것이다. 이러한 선택지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자아실현과 고품질의 재취업이 함께 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정규직 여성들은 일과 가사를 양립할 때 이를 뒷받침해주는 회사 환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남성들에 비해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높다. 혼인가정이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생산력 등이 감소하게 된다. 선택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일자리'를 내놓았다.

### 2. 정부의 대책: 육아도 하고 일도 하느라 힘들지? 둘 다 하게 해줄게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가 1번 여성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2번 여성에게는 안정적으로 일과 가사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3번 여성에게는 결혼을 위한 경제적 기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나온 정책이다.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총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중 92만여 개(약 40%)를 시간제 일자리로 구성함으로써 고용창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된 내용이며, 이를 위해 2014년도에는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전체 채용의 20% 정도를 시간제 고용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sup>1)</sup>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을 없애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대표적인 수요가 될 것”이며, 주로 공무원과 교사, 법률과 회계, 통·번역, 사회복지 업무 등에서 시간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sup>2)</sup>. 특히 시간제 일자리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여성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70% 고용률 달성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 후,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견해, 특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시간제 고용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인식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찬성측은 ‘시간제 고용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여성 일자리의 한 형태로 확대해 가면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황수경, 2013)’고 주장하며, 시간제 고용이나 유연근무제 확대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쪽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시간제 고용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되려 성차별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간제 일자리 ‘자체’의 현실은 어떠한지,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이 어떠한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제 고용이 특히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된 사회다. 산업 발전이 시작된 60년대 후반부터 기업의 성장,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이들이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착취되어 왔다. 수출재벌 중심의 경제가 형성되면서 하청 노동자 같은 불안정 일자리가 많아졌다.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에서 나는 이윤도 점점 줄어들었다. 서비스업·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렸지만, 서비스업 일자리 자체의 노동 생산성이 작기 때문에 임금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 역시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1992년 1월 노동부는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였는데, 실제로 당시의 시간제는 노동시간은 전일제와 거의 차이가 없고 임금산정방식만 시간급(時給)이 부여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된 기조와 고강도-장시간 노동 구조가 구조화된 동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시간제 노동은 시간급에 의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기업이 숙련 형성 기간이 짧은 단순 업무에서 전일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확산되었다. 시간제 고용이 노동시간의 조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통념과 달리 한국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차별적인 요인이 더 강한 동기로 작용해 온 것이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시간제 근무 정책을

1) 「중앙일보」, 2013. 6. 5. “200시간 일 줄여 92만명 시간제 일자리”

2) 「서울신문」, 2013. 6. 5. “[일자리 로드맵 발표] 시간제 공무원 어떻게 뽑나

통해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을 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보다는 현재의 환경 아래에선 대다수의 시간제 근로자가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근무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상은 어떨까. 국내의 논문들과 지표들은 시간제 일자리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처우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모든 지표에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임금은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17만 1천원, 정규직 253만 3천원, 비정규직 141만 2천원인 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65만 1천원에 불과해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30%에 머물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복지수혜율과 사회보험 가입률은 퇴직금 12.0%, 상여금 17.3%, 시간외수당 8.6%, 유급휴일(가) 8.7%,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률 13.9%, 건강보험 17.2%, 고용보험 16.3%로 매우 낮다” - 「시간제 노동과 성평등」, 신경아

〈표3〉은 시간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을 성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36%를 넘는다.

〈표 8〉 시간제 일자리 근속연수(단위: 명, %)

| 근속연수    | 여자        |       | 남자      |       | 전체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1년 미만   | 799,738   | 62.2  | 365,230 | 77.3  | 1,164,968 | 66.3  |
| 1~2년 미만 | 203,755   | 15.9  | 41,514  | 8.8   | 245,269   | 14.0  |
| 2~3년 미만 | 62,254    | 4.8   | 19,120  | 4.0   | 81,374    | 4.6   |
| 3~4년 미만 | 66,421    | 5.2   | 10,875  | 2.3   | 77,296    | 4.4   |
| 4년 이상   | 152,639   | 11.9  | 35,728  | 7.6   | 188,367   | 10.7  |
| 전체      | 1,284,807 | 100.0 | 472,467 | 100.0 | 1,757,274 | 100.0 |

〈표8〉은 시간제 일자리 근속 연수를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 모두 1년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60%를 초과하며, 3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전체 비율은 15% 정도다. 이들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이라는 목적을 위해 더욱 장려되고 있는 분위기다.

<표 3>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단위: 명, %)

| 구분 | 최임 미만   |      | 최임 이상     |      | 전체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남성 | 181,356 | 38.5 | 289,641   | 61.5 | 470,997   | 100.0 |
| 여성 | 467,308 | 36.8 | 802,482   | 63.2 | 1,269,790 | 100.0 |
| 전체 | 648,664 | 37.3 | 1,092,123 | 62.7 | 1,740,787 | 100.0 |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여성에게 선택지를 넓혀줄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불과하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장시간 노동이 지속적으로 구조화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기업들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전일제에 저임금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간제에 4대 임금이 ‘보장될 예정인’ 시간제 노동자를 비교한다면 기업들이 어느쪽을 더 선호할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 단절 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방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임신/출산을 앞둔 여성들의 경력 단절 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후에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가능함을 근거로, 기업측에서 여성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도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3. 바보야 문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니야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에도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왔던 정책은 이미 80년대부터 추진되어왔다. 그 구성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이 일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보육 제도나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고, 재취업을 위한 유망직종 발굴을 강조했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예상했던 3-40대 여성의 취업률도 그다지 늘지 않았고 오히려 60대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의 취업률이 조금 느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실패한 정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를 돌아볼 때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경력단절 후 여성들의 취업률에만 신경을 썼을 뿐, 경력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원인에 대해 해결하지 않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경력단절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출산과 육아’때문이라고만 파악하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출산과 육아는 여성에게 일을 그만두게 하는 ‘계기’만 제공한다. 단순히 출산과 육아라는 이유뿐이었다면 출산이 끝나자마자 여성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적성에 맞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까지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경력단절 후 얻게 되는 일자리는 소득이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후 연평균 임금(소득)은 149.6만원으로, 경력단절 없는 취업여성 월평균 임금(소득) 204.4만원에 비해 54.8만원이나 적은 7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를 심화시키는 여러 변수들도 존재하고 있다. 저학력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더옥 긴 기간이 걸리는 것이 하나의 예다. 또한 원하는 적성에 맞는 직업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거나 2차적 생계부양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낮은 소득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도 보인다.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이 남성보다 의지가 약하거나 집단문화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종특’을 가졌기 때문일까? 혹은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의 계기가 되게 하는 여성 노동시장 내의 상황이 있는 것일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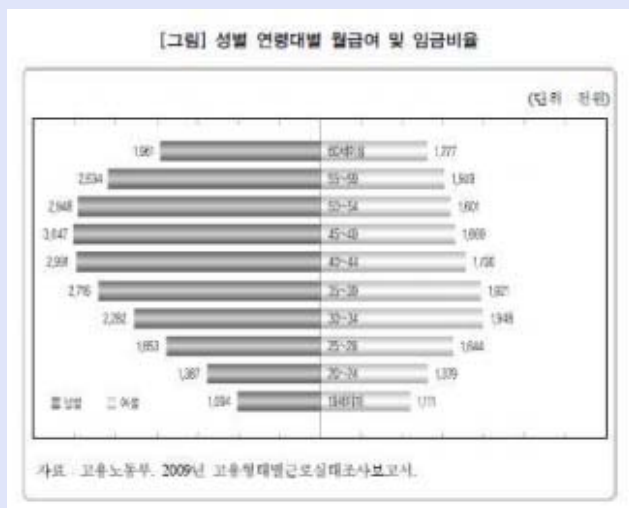
우리는 기존 논문들과 인터뷰, 통계자료를 토대로 일자리 자체에 내재된 성차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위기시 그나마도 쉽게 잘리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2013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50.2%이다. 남성 73.2%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며, OECD국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55.2%로 이 수치에 턱없이 부족하며,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취업자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곤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다. 하지만 위기상황일 경우에 여성은 남성보다 쉽게 노동단절로 이어지게 된다. 금재호·윤자영의 2011년 연구에서 보듯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대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성의 취업자 감소폭이 남성에 비해 심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남녀격차에 관해 OECD 국제비교는 임금격차를 제시한다. 한국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37%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 15%에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 13년 넘게 최하위 국가이며, OECD 평균은 2011년

3) 이 단락의 사례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강선미의 ‘여성노동 <지속의 조건>, 왜 개인과 가족뿐인가?’, 박진경 교수의 ‘지속의 조건, 다시 평등을 말하다’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기준 14.8%인데 한국은 2012년 37.5%로 평균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종사상 지위, 임금수준 등을 분석하여 고용평등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의 노동지위에 비해 2009년 기준 57.3%의 노동지위를 가지고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09년도 이후 더 이상 공식적으로 산출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성별직종분리 혹은 유리천장 등으로 여성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남편이 바깥일을 하고 아내가 안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이 배분되는 것이다. 이런 일 배분에서의 차별은 승진과정의 차별까지 이어진다.

둘째, 불안 속에 유지되고 있는 노동현실을 짚어볼 수 있다. 고용형태 자체에서 성별화되어 있는 노동구조로 여성 노동자들 중 많은 경우가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고용에 있어 남성보다 더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노동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종사하게 되는 일들의 성격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 이 문제점을 가려버리고 있다. 근로형태 현황을 보면 2014년 3월 기준 정규직 대비 남성은 26.2%이나 여성은 29.9%로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50대까지는 안정적인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0대 정년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40대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학력과 혼인 여부에 따라서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현저히 높다.



여성은 노동의 보상도 약화되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결국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의 임금 자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로 인해 성별 간 임금격차가 생겨난다. 전체 남성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64.5%, 정규직은 65.5%, 비정규직은 74.5% 수준으로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여성 비정

규직은 낮은 임금을 받는다. 연령대별 임금수준 현황을 보면, 25세 이후 남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노동단절 경험을 겪는 35세부터는 여성의 경우 감소하고 남성은 증가하면서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출산/육아 관련한 정책들이나 여성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나 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제도 등 제도는 확충되어있다. 최근에도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8세까지 높이고 분할 사용을 1회에서 3회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노동 사례를 들어보면 여성들이 기존에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법과 제도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0개 고용평등상담실 평등의 전화에서 받은 모성권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sup>4)</sup> 8개월 동안 총 1,964건의 상담 중 모성권 관련 상담은 709건으로 36.1%를 차지했습니다. 모성권 상담의 내용은 육아휴직이 316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전후휴가가 259건(36.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불이익, 임신출산 해고도 각각 48건(6.8%), 25건(3.5%)에 달했다고 합니다. 출산/양육에 관련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보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 불이익에 대한 상담 사례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제도가 정비되는 것으로는 여성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구 조사 전반에서 임산부나 육아 휴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굳이 이런 이유들을 대지 않고 업무 평가 등에서 점수를 낮게 주며 압박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은 마땅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성 자체가 불안정하게 노동하고 있고 직장 내에서 전망을 그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을 부담하거나 가정을 꾸리는 일을 포기하는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출산/양육이 장애로 작용하게 되는 노동조건 자체를 바꾸지 않고 경력단절 후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런 조건들을 당연한 것으로 고착화한다. 여성들은 어차피 출산과 양육으로 단절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상황을 바꿀 필요성이 사라진다. 경력단절 후에 여성이 부차적인 생계 보조자로 위치하는 모델을 공식화하면서 여성들 자체가 부차적인 위치였던 기존 상황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런 일은 기존 정상 가족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여성들의 경제적인 위치도 함께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다.

4) 한국여성노동자회 성명서(2014.10.08), “출산휴가 신청했더니 그만두래요”

#### 4. 시간 선택제 일자리, 나아가 여성과 사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바꾸기

정부가 굳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이렇게 여성의 ‘부차적인 생계보조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 남성이, 혹은 모자라면 여성이 2차 생계부양자로 들어가 돈을 번 후(생산 영역), 가족 내에서 출산양육가사노동 등의 재생산 영역을 알아서 잘 해결하시오. 그러면 국가는 재생산 노동에 바쁜 여성들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리다. 힘내. 아프니까 여성이다 파이팅!> 이런 패러다임으로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은 정부 정책 네덜란드의 1.5인 모델에서 따온 것이다. 70년대 경제 위기로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네덜란드는 1.5인 모델에 기초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추진한다. 이후 지금까지 네덜란드는 실업률을 3.4%까지 낮추고 여성 고용률 79.6%, 남성 고용률은 90.7% 이라는 수치(2009년)를 달성하며 네덜란드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시간선택제 모델에서 성별 분담이 유지되는 것은 네덜란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선택제 모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녀 가족 안에서 여성들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택하게 되는 결과를 맞았다. 여성들이 기존의 가사노동 외에 시간제노동만큼의 추가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도 비슷하다. 이는 네덜란드 모델이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발달시키기보다 여성과 가족의 의무로 전가하면서 노동 유연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이중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더 이상 남성 혼자 생계 부양을 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면서 노동 시장으로 진출하는 여성들, 여성들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가정을 구성하는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가족을 구성하되 출산을 망설이기도 한다. 각자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했던 것처럼 이런 현상을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의 부담을 늘리면서 해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불가능한 방식이다. 이는 사회의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해왔던 ‘가족’이 어떻게 불가능해지는지, 그와 맞물려 여성이라는 주체의 사회 경제적인 역할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생산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사용하는가, 즉 우리의 삶을 꾸리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들을 누가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것이다. 재생산은 이런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제도들을 어떻게 만들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생산과 재생산의 두 축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조정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산업화가 진전되고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면서 가족은 사회에서 이런 재생산 기능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기초단위가 된다. 그 중에서도 여성은 돌봄, 양육 같은 재생산 노동을 무급으로 담당해왔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가족 내에서만 온전히 담당하기 힘든 교육, 돌봄 같은 영역은 학교, 양로원, 사회복지제도 같은 다른 사회적 제도로 기능이 넘어가기도 한다. 국가는 이렇게 생산을 맡는 제도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재생산 제도를 적절히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변화시켜가며 사회를 굴러가게 조절한다. 그런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가족 모델이 만들어진다. 남성은 가족을 다 부양할 수 있는 만큼의 가족임금을 받고 여성은 가족에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이런 가족/젠더 모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족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경제 호황)과 동반자적 결혼 모델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가족 임금이 불가능해지면서 여성도 노동 시장에 참여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1, 2차 성혁명을 거치면서 여성이 이런 결혼 형태에서 이탈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가족에서 재생산 기능을 온전히 담당하기는 힘든 상황이 도래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작했던 구체적인 현상, 여성들의 아이를 낳지 않는, 이혼하는 가족 형태, 혹은 노동 시장에서의 부담과 가족 내의 재생산 노동을 부담하며 힘들어하는 워킹맘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들이 ‘경력단절’이라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회 경제적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가족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상황을 인식한다면 ‘시간제 일자리 정책’처럼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이 더 많은 노동을 해서 가족에 소득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이런 상황을 지속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싱글세’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여실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해당 발언을 했던 공무원은 ‘농담’이었다며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여성들이 애를 안 낳으니 싱글세를 부과해서 가족도 유지하고 여성들도 애를 낳게 하자는 논리는 여성들이 왜 애를 안 낳게 되었는지, 기존의 가족 모델로는 왜 예전에는 가능했던 재생산 노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는 기존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노동 시장을 개선하는 것, 여성 노동을 재평가할 수 있는 정책, 특히 가족과 여성에게 점점 재생산 노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재생산 노동을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혜경, 이순미, 2012, 「'개인화'와 '위협'—경제 위기 이후 청년층 '성인기 이행'의 불확실성과 여성 내부의 계층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주최 토론회 〈2052명 여성들의 일/경험과 노동욕구를 통해서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여성노동정책은 없다!〉
- 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사례집  
사회진보연대, 「고용률 70%의 진실 -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 유연화 비판」
- 이주희, 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의 극복을 위한 대안」
-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 『끝나지 않은 혁명』, 2014
- 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 〈압축노동: 시간제 노동의 두 얼굴〉 토론회, 2013
- 스테퍼니 스탈, 『빨래하는 페미니즘』, 2014

\*\*\* 출처는 이화여자대학교 '박학-인문사회학술 공동체'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라”

임 은 화 사회복지 실습생

광주에서 거주한지 12년차 되는 광주시민이며, 7월 28 ~ 8월 29일까지 3주에 걸쳐 (사)씨울 여성회에서 사회복지사 과정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을 실행하기 전에는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3주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현장실습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님들의 노고와 땀방울이 없이는 사회복지가 빛을 발휘 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생명을 일깨낸다”는 씨울여성회의 목표입니다.

폭력을 거부하고 생명을 일깨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분주히 활동하며 생명을 일깨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댓가 없이 사회의 약자 편에서 보듬어 주고 대변해주고 또 예방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실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경기도 여성주간 행사로 경기여성연대와 연합한 노래공연과 함께하는 폭력예방 거리캠페인 행사였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보건소 앞에서 음악공연과 함께 열렸었는데 시민들의 관심과 어르신들의 동참으로 폭력의 아픔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해외이주여성이 많아짐으로 (사)씨울여성회에서는 이주여성인권보호를 위



▲ 임은화 실습생(오른쪽) 구광주시청 알뜰장터

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이주여성분들도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부드러운 분위기로 음악공연과 함께 가정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외쳤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지지도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변하여 우리사회에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만이 가득한,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하루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실습기간 동안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전문가양성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교육자료 만들기, 폭력근절 거리 캠페인, 참사랑푸드뱅크 물품후송 및 배분, 알뜰벼룩시장 홍보참여 등 120시간을 현장에서 매우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 쉽게 접하지 못한 영역 들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씨울여성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 바빠 움직이는 사회복지사님의 열정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곳이며 여성의 인권과 의식 변화의 축수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피해자의 상담부터 원활한 사회복지귀까지 최선을 다하는 소장님과 사회복지사님의 열정과 사랑에 박수를 보내고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 중에“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라”라는 말씀이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때 살기 좋은 세상이 분명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2014년 뜨거운 한 여름을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신 (사)씨울여성회 류복연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습기간동안 함께 해주신 임미영 선생님, 정은주 선생님, 그리고 즈영 선생님 등 제 인생에 소중한 시간을 나눠 주신 (사)씨울여성회 가족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마치고...

이 정 은 사회복지 실습생

9월말 남들 보단 조금 늦게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실습 가능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기도해서 받아줄지 봉사활동 경험도 거의 없는 터라 현장실습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습기관을 검색하던 중 씨울여성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외에도 이주 여성인권 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회복지실습생으로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드리고 기관을 찾아 갔을 때 하남에서 광주 까지는 거리가 좀 멀기도 하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지만 거리는 별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생각에 씨울여성회에서의 실습을 결심하게 되었고, 소장님께서도 흔쾌히 받아주셔서 10월 13일부터 15일간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교육 참관 및 업무보조 등의 실습 활동을 했었는데 그중 2014년 세계 성폭력추방주간 제1회 초중고 그림그리기대회는 작게나마 행사 진행과정에 참여 해볼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도 되었고 올해가 첫 개최라는 점에서 기념도 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폭력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좋은 대회라고 생각되며 씨울여성회의 활동과 성폭력상담소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참여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습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보조 참관을 했었는데, 장애 학생들을 만나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 했던 것과 달리 밝고 순수하고 수업 참여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학생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만나보고 특성을 이해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편견 없이 비장애학생들을 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이번 실습을 통해 얻게 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성교육 참관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 학생들의 성관련지식 수준과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많은 유해매체에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성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더욱 성폭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씨을여성회 성폭력 상담소에선 폭력상담과 피해자지원 뿐만 아니라 성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 인형극반, 성교육 전문강사 연구반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습기간이 길지 않아 성교육 인형극반의 활동은 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120시간 동안 씨을여성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이해하는 대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인 업무와 실천과정 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직업선택에 관한 조언도 해주시고, 저의 슈퍼 바이저이신 소장님을 비롯한 다른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짧은 시간 이었지만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실습은 즐겁고 알차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정은 실습생(두번째 줄 오른쪽 네 번째) 10월 청석공원

## 사무국 활동(7월~12월)

### 1. 7월 여성주간행사

7월 여성주간 행사는 경기여성연대 지원으로 7월 7일(오전11시~오후3시) 광주보건소 앞 도로, 광주시여성문화센터에 약 25명 참석하에 진행했다.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거리에서 노래공연과 연극을 관람을 했다.



### 2. 하반기 이사회

하반기 이사회는 10월2일과 12월19일 오후1시에 씨울여성회 교육관에서 진행했다. 운영에 이사장 외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3,4분기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을 보고, 승인하다. 특히 4분기는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 외 신임 활동가 승인 등 많은 안건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결정되는 장이었다.

### 3. 사무국 정책회의

사무국 정책회의는 12월 10일(수, 오후 1시30분) 씨울여성회 교육관에서 진행했으며, 각본이 상임이사의 센터, 상담소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2014년 사업 전체를 평가하고 2015년 사업과 예산안을 기획했다.

## 4. 후원자 송년회 밤

12월 19일(금, 오후4시)은 한 해동안 물심양면 후원해준 분을 모시고 송년회 밤 행사를 진행했다. 운영애이사장은 10년 이상 광주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금, 후원물품, 자원봉사 등으로 도와주고 지지해 준 후원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다. 한 해동안 사업 보고와 많은 조언을 듣는 장이었다.



## 5. 단체네트워크 활동

### 1) 광주여성연대

- 광주시의회 의정지킴이단은 정인숙 단장을 중심으로 월1회 모임을 갖고 광주시의회 임시회의, 정례회의와 11월 행정사무감사모니터링을 실시하다.
- 인문학 강좌는 김선보 교수를 초빙하여 9월부터 11월초(매주 금)까지 8회 진행하다

### 2) 경기여성연대

- 7월 여성주간행사는 7월7일 연극으로 공감하는 여성인권이야기 ‘여성의 삶을 함께 바라본다.’ 주제로 광주보건소 앞 도로와 광주시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했다.
- 9월, 11월 운영위원 모임에 광분이 상임이사가 참석하다.
- 10월17일-18일 1박 2일 워크샵은 남한산성 내 민박 한옥마을에 1박하고 남한산성을 등반했다.
- 11월 단합 1박 워크샵은 여주 하늘샘 수도원에서 했다.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 광주시장상 수상



가정폭력 / 광주하남교육장상 수상



학교폭력 / 광주하남교육장상 수상



11월 수원역 성폭력추방주간행사



광주경찰서 대강당 / 성폭력예방인형공연 관람

- 여기는 상담실입니다..... 편집부
- 2014년 하반기 상담통계..... 편집부
- 성교육 전문강사 활동을 하다..... 김혜경 제13기성교육전문강사
- 성교육 체험관 수업..... 배영숙 제11기성교육전문강사
- <제1회 폭력예방캠페인 초.중.고 그림그리기대회 소감문>
  - \*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의 꿈을 꾸며..... 배지윤 초월중학교 2학년
  - \* 학교폭력, 성폭력 등 다시금 생각하는..... 김현채 양벌초등학교 5학년 6반 김진솔 엄마
  - \* 물속에서 열심히 수다종일 물고기들이..... 김미숙 경안중학교 이우진 학생 어머니
- 하반기 상담소 활동



## 여기는 상담소입니다

상담자 네, 안녕하세요 씨올여성회입니다.

내담자 안녕하세요?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상담자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담자 아는 사람이 있는 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자 애 그렇셨군요. 저희 상담소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상담소에 전화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담자 한 달 전에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함께 살고 있던 엄마도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기 집을 알고 있는지 한 번 찾아와서 너무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상담자 그랬군요. 선생님이 정말 전화를 잘 주셨습니다. 본인들이 전화하기가 힘들텐데, 이렇게 전화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분이랑 상담할 수 있을까요?

내담자 네, 저도 지금 지방에 있어서 이렇게 전화 밖에 도와 드릴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씨올여성회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서 전화 드린겁니다. 피해자와는 제가 통화를 해서 씨 여성회에서 전화오면 도움을 받으라고 말해 놓겠습니다.

상담자 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이나 혼자 무섭고 힘들었을텐데, 그래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서 통화가 되면 우선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분의 피해상황에 따라 긴급지원 또는 주호소를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전화로 그 분이 성폭력피해로 두려움에서 보호받고 치유와 그 외 지원을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담자 네, 물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담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 분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후 자원 내용(시간 순서로 정리) \*\***

정부(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위 피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 상담소가 광주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상담→ 광주경찰서 고소(동행) → 광주경찰서 사건사고 진술(동행)→ 산부인과 진료 - 임신, 성병, 에이즈 검사(동행)→ 정신과 상담과 심리검사(동행)→ 성남광주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생활비 지원연계 → 본 상담소 지속상담 →광주경찰서 성폭력수사팀 수사 진행 중

**힘드실 때 전화주세요.**

**주위에 성폭력피해자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누구나 전화 주세요.**

**031-797-7032**

상담, 법률, 수사지원, 의료지원, 동행, 쉼터 연계, 생활비 지원 등 함께 합니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 2014년 하반기 상담통계 현황(7월-12월)

### 1. 상담 통계(7월-12월)

#### 1) 상담 유형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체상담 529건 중 성폭력은 273(52%)건, 기타상담은 256(48%)건이다. 성폭력 273건 중 피해유형은 강간106(39%)건, 성추행164(60%)건, 기타 상담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 구분 | 계   | 성폭력상담 | 피해유형 |     |     |     |     |    |
|----|-----|-------|------|-----|-----|-----|-----|----|
|    |     |       | 강간   | 성추행 | 스토킹 | 사이버 | 성상담 | 기타 |
| 계  | 529 | 273   | 106  | 164 | -   | -   | -   | 3  |

#### 2) 성폭력피해자·가해자 연령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529건 중 성폭력피해자, 가해자 연령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는 7세미만 0건(0%), 7-13세미만 17건(7%), 13세-19세미만 146건(54%), 19세-60세미만 107건(39%)이다.

가해자 연령은 7세-13세미만 10건(1%), 13-19세미만 124건, 19세-60세미만 127건(75%), 60세이상 3건, 미파악 9건이다.

| 계   | 피해자 연령 |          |           |           |        |     | 계   | 가해자 연령 |          |           |           |        |     |
|-----|--------|----------|-----------|-----------|--------|-----|-----|--------|----------|-----------|-----------|--------|-----|
|     | 7세 미만  | 7-13세 미만 | 13-19세 미만 | 19-60세 미만 | 60세 이상 | 미파악 |     | 7세 미만  | 7-13세 미만 | 13-19세 미만 | 19-60세 미만 | 60세 이상 | 미파악 |
| 273 | -      | 17       | 146       | 107       | -      | 3   | 273 | -      | 10       | 124       | 127       | 3      | 9   |

#### 3) 성폭력 가해자 유형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29건 중 성폭력 가해자 유형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는 부모와 가족, 혈족은 69건(25%), 애인 등 아는 사람과 종교인 43건(16%), 동급생 선후배 135건(49%) 채팅 등 모르는 사람 15건(5%), 기타 11건이다.

| 계   | (의) 부모 형제 | 4촌 이내 혈족 | 배우자 | 애인 | 직장 관계자 | 동네 사람 | 동급생 선후배 | 교사, 종교인 | 서비스 제공자 | 채팅 상대자 | 모르는 사람 | 기타 |
|-----|-----------|----------|-----|----|--------|-------|---------|---------|---------|--------|--------|----|
| 273 | 59        |          | 10  |    | 22     | 5     | 135     | 13      | 3       | 10     | 5      | 11 |

우리 지역의 본 상담소 2014년 하반기 상담통계는 총 529건 중 성폭력 상담 건수는 273건 기타상담(가정폭력,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자녀문제 등) 256건으로 상담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 연령,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상담의 유형을 보면 성추행이 강간보다 많은 건수를 차지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강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19세 이상 성인들의 피해가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성폭력 상담건수 273건 중 아는 사람(가족, 친구, 직장, 동급생 등)이 258명의 95%를 차지하고 모르는사람(사이버, 거리 등)은 15건의 5%만 보였다. 전년도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89%로 올해 6% 증가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피해에 대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잘 아는 가족관계, 학교(직장)친구 또는 선후배, 교사, 종교인, 동네 사람 등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특성, 장단점, 일상생활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성폭력 범죄는 나이, 권력, 경제, 힘 등에 의해 발생하며 피해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 경우 만5세 여아의 성기 만지기, 가해자의 성기 만지기, 빨기 등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강간이 시작되었다. 친부는 성폭력을 하기위해 피해자가 좋아하는 음식, 선물, 말로 접근하거나 하물며 친구관계까지 관리한다는 것이다. 강간이 시작되고 친부의 행동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가 강한 거부를 할 때 가해자는 위협, 신체폭력, 벌세우기, 학교성적, 집안 일등으로 두려움(무서움)을 갖게 하여 거부를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친부의 성폭력은 피해자가 만20세 되어 신고를 하면서 종결되었고 친부는 10년 구형을 받았다.

이 피해자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가능했고, 본 상담소 의뢰 경위는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와 감정조절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어린나로부터 성폭력 피해로 혼자 감당하고, 참고, 견뎌오는 동안 형성된 정서적, 심리적인 병이 되어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이 피해자 경우 공부라는 끈을 잡고 견뎌왔고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따라서 2014년 하반기 상담통계를 보면 성폭력피해가 95%이상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피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폭력 범죄로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아님을 인지하고 사회 분위기도 피해자의 말을 조금은 듣고 보는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는 정부정책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가 촘촘히 갖추어가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 만 아니라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이 아동, 청소년, 노인, 일반인, 직장, 학부모 등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20%미만의 성범죄 신고율은 성폭력피해는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혼자 참고 견뎌가는 피해자를 위해 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정책들이 만들어져 인간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 성교육 전문강사 활동을 하다

김 혜 경 (제 13기 성교육전문강사)

씨알여성회에서 성교육 전문강사과정 교육을 수료하면 성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강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에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다. 첫 시간 객라분이사님의 여성인권과 폭력 문제, 성의 역사'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성에 대한 이해의 초급과정, 성충동과 음란물,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는 중급과정, 강의안 작성 및 강의 시연의 고급과정을 수료하며 성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

50대의 나이임에도 평소 성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모르는 것에 대해 불편함도 없던 나는 첫 수업

시간에 여성, 남성의 성기를 스스럼없이 말씀하시던 이사님의 강의에 많이 놀란 기억이 난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카톨릭 신자인 본인은 성(性)이란? '부부의 성관계, 생명탄생'의 의미가 컸고, '자위 하면 안 된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낙태 하면 안된다.'는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자란 나는 솔직히 부부관계를 포함해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편하진 않았다. 그러나 씨알여성회의 매주 목요일 성강사 모임 참석과 성교육 강의를 준비하며 소장님과 성강사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나도 모르게 성이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행동은 상대방의 허락과 성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하



▲ 김혜경 강사(오포초등학교 성교육)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3년은 강사과정 수료 후 성교육강사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지금은 조금이나마 성교육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올바른 성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성이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이란 우리 역사와 문화, 사회 등 인간의 삶 자체임을 알게 되었고, 특히 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성은 그 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성에 대해 무지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포초 4학년 대상의 성폭력예방교육 첫 강의를 준비하며 설렘과 두려움으로 성교육강사로서의 첫발을 내딛었고 강의할 때마다 강의안 작성, 시연과 피드백 후 현장 강의라는 과정을 반복하며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광일중, 초월고, 경안중학교 성폭력예방교육을 강의하며 성강사로의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조금씩 성교육 전문강사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은 짧은 강사경력이지만 성교육이란? 성폭력예방가해자, 피해자 되지 않기 위한 단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성이란? 여성과 남성, 동성 간의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육체적인 관계, 즉 성(性)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름다운 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하고 성이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상대방과의 솔직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성교육 전문강사 활동이 초·중·고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올 한해 성교육 전문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류복연 소장님과 임미영선생님, 성강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노력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성교육 전문강사로 성장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 성교육 체험관 수업

배 영 숙 제 11기성교육전문강사

광남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 올해는 광일 중학교에서 수업하고 두 번째였다. 이번에는 강당에서 “내 몸은 소중한”을 주제로 아이들을 만났다.

우리 몸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 아이가 뜻밖에 많았다. 신체 명칭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았다. 몸의 부분을 가리키며 머리, 가슴, 음경, 음순의 정확한 명칭을 말하게 했다. 탄생 동화를 그림으로 보여 주며 남녀의 데이트에서 결혼, 정자와 난자의 만남, 아기의 탄생 등으로 가족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인간발달단계의 그림을 보며 우리는 어디쯤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 신체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해 보게 했다. 특히 경계 부분의 중요함을 알게 하고 강조해서 말해 보게 했다. 배꼽 아래에 주먹을 가져가며 자궁의 크기와 위치를 알아보고 자궁, 태아 모형으로 태아가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며 살펴보게 했다.

다음은 임신복을 입고 엄마가 되어 보기(걷기, 앉기)를 하며 어려움을 체험했다. 임신복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으며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했다. 그런 소중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되어 신생아 안아보기를 했다. 장난치기도 하고 어색해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신중했다.

아이들은 대답도 잘해 주고 눈을 반짝이며 들어 주었다. 선생님들도 교실 수업과는 달리 집중하며 흥미로워 한다고 좋아하셨다. 지식 전달이 아닌 마음으로 느껴 보기를 위한 감성수업이었다. 산만하다고 걱정하신 반들이 오히려 활발히 대답하고 적극적이었다. 3시간 연속으로 떠들어서 목이 아팠다. 그래도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낙엽 지는 쓸쓸한 가을날이 단풍으로 예쁘게 물들어 가는 날이었다.



▲ 배영숙 강사(10월 광남초 성교육)

##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의 꿈을 꾸며...

배 지 윤 초월중학교 2학년



▲ 가정폭력/광주하남교육장상 수상

제1회 폭력예방캠페인 초·중·고 그림그리기 대회 초월중학교 2학년2반 배지윤입니다. 저희 학교 게시판에 폭력예방 그림그리기 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는걸 보니 상금10만원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 이 그림그리기 대회 꼭 참가 해야겠다

“왜냐면” “상금 10만원을 받고 싶은거예요. 상금 10만원으로 꼭 받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동기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씨울 여성회에 신청을 하였지요.

당일 날 늦잠을 자서 부랴부랴 일어나 엄마와 함께 돛자리(1인용)파스텔, 물감, 붓, 물통 등등을 챙겨 청석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 처음인지라 상쾌한 공기에 파란잔디에서 그림을 그리러니 설렘이었지요. 옹기종기 앉아서 그림 그리는 분위기도 좋았어요.

난 가정폭력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 했어요

살짝 바람도 불고 햇볕도 따사롭고 붓으로, 파스텔로 채색을 하는데 분위기가 그랬을까 넘 좋았지요. 옆에서 엄마는 스마트 폰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들려주고 굴도 까서 먹여주었어요.

저희 집에는 엄마, 아빠, 오빠, 나 이렇게 산답니다. 가정의 화목을 느끼며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을 보면서 가정폭력이란 주제에 마음이 쏠렸어요.

모두모두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의 꿈을 꾸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가 된다면 온 세계가 평화로울텐데....

교육장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넘 놀랍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1회 폭력예방캠페인 초·중·고 그림그리기대회 소감문 II〉

## 학교폭력, 성폭력 등 다시금 생각하는...

김 현 채 양벌초등학교 5학년 6반 김진솔 엄마

안녕하세요~

양벌초등학교 5학년6반 김진솔 엄마입니다.

10월 25일날 개최되었던 폭력예방 캠페인 그림그리기대회  
에서 교육장상 표창장을 받게 되어 아이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저도 물론간진심으로 감사 드리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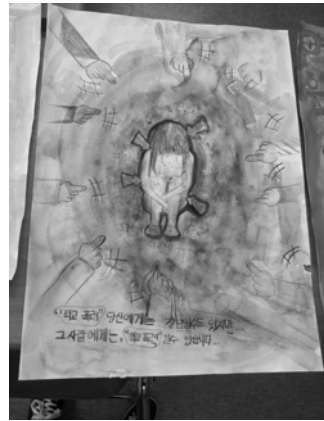
이번 폭력예방 그림그리기대회는 완전한 가을 날씨 속에 아이  
들이 잔디에 앉아 그림 그리며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오신 스텝분들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도 해주시며  
캠페인 준비로 바쁘셨을텐데 부모들 차, 생수, 아이들 간식까  
지 준비까지 하셨더군요~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그 마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인 저도 성폭력에 대해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도 심어주시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폭력/광주하남교육장상 수상

## 물속에서 열심히 수다중일 물고기들이...

김 미 숙 경안중학교 이우진 학생 어머니



가정폭력/광주시장상 수상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오더니 폭력예방 그림 대회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밤 12시까지 아이디어를 짚다고 A4용지에 이것저것 스케치를 해본다. 지우개 똥이 바닥에 산처럼 쌓인다. 생각한다고 내가 가끔 아이디어를 말해 주면 이놈 "픽~~~" 웃는다. 나는 아이 웃음에 "왜~~~" 하지만 아이의 그 웃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엔 머리가 너무 둔처럼 딱딱해졌다. ㅎㅎㅎ 낚시를 좋아하는 아이답게 역시 그림에는 물고기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색칠 연습까지 하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벌써 새벽을 달리고 있기에 스케치만 한 번 연습해 보고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대회 당일 다른 미술대회 때 주차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아침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섰다. 소풍 간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우리 아이랑 그림엔 영 소질이 없는 조카까지 데리고 도착해서 원했던 자리에 주차도 하고 돛자리도 깔고 이웃에 사는 엄마랑 딸내미 그리고 학원 선생님도 만나고...날씨도 뜨겁지도 춥지도 않은 날들이하기 더없이 좋은날. 물이 있고 이제 막 색깔을 입기 시작한 나무와 풀 그리고 보이는 않지만 물속에서 열심히 수다중일 물고기들 그보다 더 재잘대는 많은 아이들 참 기분 좋은 날... 여기저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아이들이 씨 여성회에서 나누어 준 종이에 각자의 생각을 스케치하고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다들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것 같아 한편 아쉬움이 밀려 왔다 사라지곤 했다.

그러지 않아 조카아이가 학교 폭력 때문에 잠깐 힘들어 하던 터라 경험에서 나오는 그 아이의 솔직한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잔함을 느낀다. 아마 스케치하고 색칠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담아 두었던 응어리를 그림으로 풀지 않았을까? 조카는 쑥스러운 듯 후다닥 그려놓고 여기저기 다니며 놀기 바쁘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아이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게 참

좋았다. 씨올 여성회에 대해서도 처음 알았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번 대회가 아이뿐 아니라 나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 주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이라는 걸 써 보는 것 같다. 아이 아빠와 연애 편지 이후 처음이 아닐까? 미술 대회 소감문을 써 달라는 전화에 "네" 하고 생각 없이 대답을 해 놓고 바로 후회를 했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하지만 썼다. 그리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미술대회를 주체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일을 만드는 것 일텐데... 이런 대회를 만들어 어른아이 모두에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대회가 제 1회라고 하니 앞으로 꼭 좋은 대회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 하반기 상담소 활동

###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 ■ 성인대상 폭력예방교육

년 2회 여성가족부 사업 전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본회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경기남부 21개 시 군 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310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이 학부모, 노인, 장애인, 군인 등 약 2만5천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남부지역 15개 성폭력상담소, 31개 가정폭력상담소와 컨소시엄, 협력기관으로 연대했다. 가정폭력, 성폭력전문강사와 사업담당자 고은정 선생이 수고했다.



▲ 임복희강사(10월 씨올여성회 교육관)



▲ 정애숙 강사(9월 성은학교)

#### ■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지역 내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성교육은 총 44회 약 2,200명이 참여했다. 성교육 교구를 설치하여 직접 체험하는 성교육 체험관



▲ 배영숙강사(10월 광남초등학교)



▲ 7월 곤지암중학교

교육은 성지식을 알고 또래와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장애학교(인덕, 동현, 한사랑), 초등학교(경안초, 광명초, 만선초), 중학교(곤지암중, 광남중, 경안중, 광일중), 고등학교(중앙고, 초월고)학교가 참여했다. 성교육전문강사 김진숙, 김혜경, 권필재, 박은형, 배영숙, 신인애, 임복희선생이 수고했다.

## ■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인형극공연/광주시 지원

광주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지역 내 아동과 장애청소년 대상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광주씨올인형극단’이 공연했다. 광주경찰서 대강당, 7월 광주시청 대강당, 7월-11월까지 장애학교(한사랑, 인덕, 동현), 각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 15회 약 3천명 아동이 참석했다.

유옥란 단장, 김태식, 장소운 단원이 수고했다.



▲ 광주경찰서 대강당



▲ 인덕학교 대강당

## ■ 제1회 폭력예방캠페인 초·중고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제1회 폭력예방캠페인 초·중고 그림그리기대회’를 10월25일(토) 청석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했다.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성평등확산을 위해 11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학교, 관공서에 입선작 16점 그림을 전시했다.

행사에 100여명 학생이 참석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을 주제로 3시간동안 그림을 그리고 동반한 100여명 가족은 학생을 응원하고 준비해 온 점심도 함께 먹으며 가족나들이 소풍분위기였다.

약 80점 그림은 10월 30일 심사했으며, 심사위원 운영애 씨올여성회 이사장, 이지민 영은미술관 학예팀장, 곽혜영 화가, 김해수 화가, 김선보 교수님이 수고해주셨다.

입상작은 교육장상 3명, 시장상 3명, 경찰서장상 3명, 성평등상 3명(상금10만원), 안전상 3명(상금 5만원), 참가상 13명(문화상품권)이 선정되었다.

‘제1회 폭력예방캠페인 초·중고그림그리기대회’를 성황리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준 광주시청, 광주하남교육청, 광주경찰서와 특히 광주시청 안전총괄과의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지원했으며 자원봉사해 준 성인, 학생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 행사는 행사당일, 입선작 그림 전시하면서 지역민의 높은 호응과 관심에 2015년 10월에 2회째 개최할 예정이다.



▲ 10월25일 청석공원/그림그리기 대회



▲ 광주시청 11월 1주일간 그림전시



▲ 10월30일 그림 심사위원

## ■ 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광주시 지원

성폭력피해자 청소년, 성인 15명이 개별상담, 집단 성교육, 1박2일 캠프에 참여했다. 1박2일 캠프는 7월 곤지암리조트, 12월 강원도 정동진 해수욕장, 오죽현, 시계박물관 등 문화체험도 실시했다.

## ■ 소모임 활동

### ■ 성교육 전문강사 연구반

매주 목요일(오전10시) 성교육전문강사 연구반 모임을 진행했다. 대상별(장애인, 청소년, 학부모) 강의 주제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생애주기별 교재를 활용하여 토론하고, 강의 교수법, 시연, 피드백, 교구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김진숙, 김혜경, 박은형(총무), 배영숙, 신인애(회장), 이수현, 임복희강사가 참석했다.

### ■ 성교육 인형극 연극반

매월 격주 화요일(오전 10시)에 아동, 장애청소년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광주씨을인형극단'모임을 가졌다. '척척맨 도와주세요'란 주제로 탈인형극, '요정은 수다쟁이'손인형극 공연을 연습하고 소품을 점검, 수리하는 등 아동과 장애청소년을 만나러가기 위한 준비로 김태식 단원, 유옥란단장, 장소운 단원이 수고했다.

## ■ ■ ■ 성폭력예방, 성평등확산 홍보 캠페인 활동

- 7월3일(목 10시)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 경기도청 주관 7월여성주간행사에 성교육체험관을 전시했다. 김진숙, 박은형, 임복희 강사가 수고했다. 7일(월 오후1~4시)본회 7월여성주간 행사를 경기여성연대가 지원하여 광주보건소 앞 도로에서 캠페인활동에 김지영, 임은화, 히이엔이 참석했다. 8일 광주시 7월여성주간행사가 광주시스포츠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했으며, 성교육 체험관을 전시하여 홍보에 임은화, 정혜정 선생이 수고했다.



▲ 7월3일 경기도 여성주간행사



- 9월25일(목 오후4시~6시) 도척면에서 지역주민 찾아가는 성폭력예방 홍보물을 배포했다. 광일중 학생40여명, 교사2명, 광주경찰서 성폭력수사팀2명, 실습생 권주신, 문충호 선생과 박혜영 자원봉사자가 수고 했다. 27일(토 12~4시)구광주시청에서 매월 네째주 열리는 알뜰장터 바자회에 홍보물전시 배포로는 문충호, 권주신, 문충호 사회복지실습생, 3명 자원봉사 학생이 수고했다.
- 10월25일(토 11시~오후1시)광주시내 전 지역 성폭력예방 거리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청소년 50명, 광주경찰서 6명, 사회복지실습이 수고했다.
- 11월19일(수 오전10시~오후4시)경기도청 주관 성폭력추방주간행사를 수원역에서 진행했다. 제1회폭력예방캠페인 초중고 그림그리기 입상작 전시,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을 했다. 25일~30일 광주시청에 제1회 폭력예방 초중고 그림그리기 입상작을 전시
- 12월1일~31일 제1회 폭력예방 초중고 그림그리기 입상작전시를 탄벌초, 매곡초, 양벌초등학교에 전시했다.



▲



▲

## ■ ■ ■ 유관기관 연대 활동

### ■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활동

7월, 9월, 12월 류복연 소장 운영위원 회의 참석/서울여성프라자

### ■ 경기남부성폭력상담소 권역 활동

8월, 15개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경남하동, 통영에서 2박 워크샵에 24명 참석(한국여성재단 지원)

6월, 12월 15개 성폭력 상담소 소장 회의/용인성폭력상담소와 남한산성에서 실시

7월, 12월 폭력예방교육 워크샵 실시

11월 19일 수원역에서 성폭력예방추방주간 캠페인

25일 '성폭력예방교육 성평등확산 토론회 개최' 15개성폭력상담소, 경기도청,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공동개최/장소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8월22일 경남통영 박경리문학관 앞



▲ 7월폭력예방교육 워크샵  
(광주시여성문화센터)



▲ 11월 수원역 성폭력추방주간행사



▲ 12월 남한산성 수어장대



▲ 11월 인사말-류복연소장

### ■ 성남광주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호암미술관 견학, 쌀(10kg-12포), 생계비지원, 이사비, 학원비, 미술치료 등

### ■ 광주시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 회의

매월 1회 여성분과 회의에 정은주 상담원이 참석했다.

#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



- Xin Ch o ! 안녕하세요 !! ..... 이보은 광주경찰서 근무
-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새로운 꿈을 펼친다. .... 정다연(딩티즈영, 센터 간사)
- 하반기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 활동 ..... 편집부

## Xin Chào ! 안녕하십니까 !!!

글 이 보 은 광주경찰서 근무

번역 정 다 연 덩티즈영

Tôi là 이보은, 29tuổi tôi đến từ Việt Nam, kết hôn và sống ở Hàn đã được 10 năm. Hiện tại tôi là nhân viên cảnh sát ở thành phố Wgangu tỉnh Gyeonggi-do. Kết hôn ở Việt Nam mà sang Hàn thì 10 năm rồi 29 tuổi chủ nhân của cảnh sát ở Hàn Quốc. Tôi là 이보은.

Cũng giống như bao phụ nữ kết hôn di trú khác bước đầu đặt chân lên đất nước Hàn tôi đã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và lúc đó tôi cảm thấy ghen tỵ với người Hàn.

Nhiều cô dâu Việt Nam khi sang Hàn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và lúc đó tôi cảm thấy ghen tỵ với người Hàn.



Bắt đầu một cuộc sống mới ở nơi xứ người tôi đã phải chịu rất nhiều áp

▲ 맨 가운데 경찰제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저자 이 보은 경찰.

lực về tâm lý và tôi nghĩ cần phải sống một cách đường hoàng như người Hàn. Tôi đã đầu tư hai năm rưỡi tư học và cố gắng học để hoàn thành khóa học tiểu học, trung học, và phổ thông trung học tại Hàn Quốc.

Chỉ trong một thời gian ngắn mà tôi đã học xong tiểu học, trung học, và phổ thông trung học. Tôi đã đầu tư hai năm rưỡi tư học và cố gắng học để hoàn thành khóa học tiểu học, trung học, và phổ thông trung học tại Hàn Quốc.

Sau khi hoàn thành quá trình học tiểu học, trung học, phổ thông trung học tôi đã đặt ra cho mình một mục tiêu cao hơn và trong vòng 7 năm tôi không ngừng cố gắng học tiếng Hàn, đồng thời trở thành nhân viên thông, biên dịch ở thành phố Dongducheon.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난 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7년 동안 공부를 계속하여 동두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통번역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Làm thông, biên dịch ở thành phố Dongducheon tôi thấy những phụ nữ kết hôn di trú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và trở ngại. Và tình cờ tôi được một bài báo viết về một phụ nữ kết hôn có thể làm cảnh sát ở Hàn và lấy đó làm hi vọng tôi đã thử thi vào ngành cảnh sát.

통번역사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결혼이주여성을 경찰관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경찰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Trải qua mấy năm ròng tự học thật vất vả nhưng bên cạnh đó tôi có được lòng tự tin và nhận được thành tích xuất sắc trong đợt thi tuyển và được được chính chính khoác trên mình bộ đồng phục cảnh sát ở Đại Hàn Dân Quốc.

몇 년 동안 혼자서 공부에 매달려오면서 고생도 많았지만 한편 자신감도 얻은지라 두려움 없이 경찰시험에 도전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하여 당당하게 대한민국 경찰관의 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Khi trở thành nhân viên cảnh sát với vai trò là người đi trước tôi luôn ủng hộ, chia sẻ những kinh nghiệm và cách khắc phục những khó khăn cho những phụ nữ kết hôn di trú để họ có được lòng tự tin và hi vọng vào cuộc sống.

경찰관이 되고 난 후에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고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경험과 응원을 공유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ho đến tận bây giờ, những khoảng thời gian tôi đã vượt qua quả thực không dễ dàng chút nào. Và sau này để những phụ nữ kết hôn di trú có thể trở thành người Hàn Quốc hạnh phúc tôi sẽ cố gắng vì một xã hội đa văn hóa.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이겨왔지만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행복한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새로운 꿈을 펼친다.

정 다 연 덩티즈영, 센터 간사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으로 온지 8년 째 된 덩티즈영이고 한국이름은 정다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의사소통문제가 제일 급하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한국사회에 화합하고 한국에서 인정하는 직업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친구소개로 씨알여성회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와 인연을 맺고 센터에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여러 가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하였고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학생으로 센터에서 공부하였고 끊임없이 제 꿈과 희망을 품고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감이 오지 않고 길을 헤메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 항상 제 꿈을 격려주시고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010년도에 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기회도 주어서 한국어, 한국 문화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서 2010년도에 topik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공부하던 중 2014년 10월부터 씨알여성회센터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국적취득 및 친부모 초청할 때 필요할 서류를 상담 및 제공하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중 언어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씨알여성회 이주여성센터에서 일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작은 도움도 주지만 저에게도 큰 행복을 줍니다. 때때로 서류 때문에 센터에 찾아오는 결혼이주여성도 있고, 때때로 그냥 이야기 하고 싶어서 센터에 찾아오는 이주여성도 많습니다.

그 여성들이 한국말로 자기 속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쌓인 것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도 많습니다. 센터에 와서 자기 마음속에 고민과 힘들음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벼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 목소리를 들으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사회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하여 고민과 꿈을 향하도록 용기를 내어서 작년 3월에 한국복지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다연(딩티즈영) 한국어 기초반 수업

노릇, 주부노릇, 학생노릇을 동시에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과 힘이 듭니다. 센터장님께서 항상 저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아이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시작한지 엇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여러분!!

꿈이 있다면 끊임없이 두드리고 오늘부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꿈은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꼭 열립니다.

##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 활동

### 교육 활동

####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은 베트남 출신여성 7명과 중국출신 여성 5명이 각각 한 학급씩 두 개 학급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운영되었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는 베트남출신 이주여성 덩티즈영 강사가 가르치는 베트남 반 수업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중국출신 이주여성 이금숙 강사가 가르치는 중국 반 수업이 진행되었다.

한국어교실 기초반은 한글공부 1단계로 두 명의 강사들이 모국어와 한국어 등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 ○ 한 국 문 화 체 험

광주시청 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진행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정으로 정동진으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으며, 15가족 50여명이 참여하여 행복하고 화목해지는 시간이었다.

#### ◎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건강검진

경기도 성남만나교회에서 이주여성들과 친정 부모님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이주여성과 친정 부모님 등 18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 ◎ 곤지암 도자기 체험

토요 공부방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보냈던 시간으로,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 및 창의력

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

평상시에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도자기를 작은 고사리 손으로 만지고 그리면서 손끝의 촉감을 느끼고 단순하고 작은 것 같지만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을 보면서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었던 즐거운 체험이었다.



### ◎ 다문화사랑 문화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의 노래와 춤, 그리고 전통문화를 마음껏 보여주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멋과 소리를 즐기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고객이고, 연예인이 되어 그날의 주인이 되었던 매우 의미가 큰 하루였다.



### ◎ 자원봉사센터 김장체험

13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일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인 김장담그기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직접 담아보면서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 씨을여성회 회원 소식

### ❁ 이런 분이 본회에서 회원으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 회원 : 권주신, 박남식
- 전문위원 : 최은희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표영선 광주경찰서 여성계장  
정희재 변호사
- 자문위원 : 윤정희목사, 최혜자 선생

### ❁ 이런 분이 본회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했습니다.

- 7월 임은화(한국복지문화교육원)
- 8월 채은병(HRD원격)
- 9월 문충호(한국복지문화교육원)
- 10월 이정은(서울문화예술대학교)

본회 사무국, 상담소, 이주여성인권센터의 다양한 현장실습으로 수고 많았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어려운 사람과 늘 함께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랍니다.

### ❁ 상담 활동가 퇴사

- 7월 김영숙 폭력예방교육 사업담당자가 경기도 내 친족성폭력피해보호시설장으로 발령받아 퇴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12월 고은정 폭력예방교육 사업담당자
- 12월에 정은주 상담원이 건강이유로 퇴사하여 빠른 쾌유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 반갑고 기쁜 소식 전합니다.

- 유옥란 감사님 장녀 10월 결혼 축하합니다.
- 윤종설 이사님 차녀 7월 결혼 축하합니다.
- 류복연 소장이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여

♣ 남이섬 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주)남이섬에서 주신 후원금(10,000,000)은 이주여성인권센터 운영사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서가산책

책과 함께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씨을 여성회에서 추천합니다.  
작은 책이 세상을 바꿉니다.



## 내 이름은 말랄라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최연소 여성 인권 운동가  
저자 허운주 지음 / 출판 삼성당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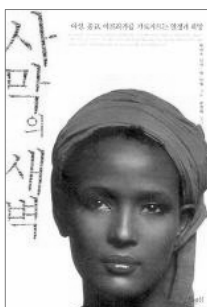
‘말랄라’의 삶을 담아낸 『내 이름은 말랄라』. 말랄라는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 벨리 출신이다. 탈레반이 여자아이의 학교 등교를 금지하자 열한 살이었던 2009년부터 영국 BBC 방송 블로그에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탈레반을 비판하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스와트 벨리의 참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탈레반의 지속적인 암살 위협 때문에 고국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영국에 머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이들은 말랄라의 삶을 보면서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작고 가녀린 소녀였지만 폭력에 굴하지 않았던 말랄라는 자신의 16번째 생일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청소년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참석했다. 그녀는 어떤 위협에도 모든 사람이 학교를 가고 인권을 보장받는 세계를 만들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연설을 해서 큰 감명을 주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말랄라의 생일인 7월12일을 ‘말랄라의 날(Malala Day)’로 지정하였으며, 유엔을 중심으로 모두가 교육을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성폭력을 다시 쓴다

작가 : 정희진, 정춘숙, 전희경, 강김아리, 박이은경, 정미례  
출판 : 한울아카데미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언어,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조의 내용은,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사막의 새벽

저자 : 와리스 디리, 잔 다옴지움 역자 : 문영혜 옮김 출판사 : 섬앤섬

소말리아 태생의 세계적인 패션모델 와리스 디리의 에세이, 『사막의 새벽』. 소말리아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며 낙타를 키우는 유목민의 딸로 태어나, 16세 때 60세 남자와 결혼시키려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영국 런던의 이모부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진작가에 눈에 띄어 패션모델의 세계로 들어선 저자의 에세이로, 〈사막의 꽃〉의 후편이다. 〈사막의 꽃〉이 어린 시절에 겪어야 한 끔찍한 체험을 전세계에 알렸다면, 이 책은 오랜 내전으로 인한 혼란에 신음하는 소말리아 사막으로 20년만에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 태생지로 돌아가는 설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을 향한 그리움, 소말리아 사막에 대한 고마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애정 등이 드러난다. 아울러 소말리아의 발전을 막고 있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저자는 이슬람 신앙의 사회적 권위는 인정하되, 여성 인권을 말살해온 할레라는 악습을 그만둘 것을 주장한다. 즉 모든 아프리카 여성이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해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저자의 목소리는 세계적인 패션모델로서가 아닌 아프리카 여성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열정과 희망을 품고 있다.

## 2015년 상반기 서울여성회 활동

서울여성회는 다양한 사업, 교육, 행사, 연대활동 등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여성폭력, 성차별 없는 성평등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사무국에서는...

#### ◆ 제 13차 정기총회

일시 : 2월 26일(목) 오후4시

일시 : 분기별

내용 :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활성화

#### ◆ 이사회(연 4회)

일시 : 3월, 6월, 9월, 12월

#### ◆ 제 6회 송년회 및 사업 보고회

일시 : 12월

참가자 : 후원 회원

내용 :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저녁식사  
초대

#### ◆ 제3주년기념 일일찾집 기금마련 후원행사

일시 : 5월

내용 :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기금마련

#### ◆ 독서토론모임(3월)

일정 : 월 2회

대상 : 성인 누구나

#### ◆ 정책협의회 및 종무식

일시 : 12월 (1박2일)

참가자 : 이사, 전자문위원, 회원, 활동가

#### ◆ 7월 여성주간 행사

-경기여성연대 지원사업

일정 : 7월 첫째 주

내용 : 여성의 인권향상과 권리 찾기

#### ◆ 프로젝트 사업기획

일정 : 연중

내용 : 여성인권관련사업, 활동가 역량강  
화사업

#### ◆ '여성연대' 회원단체 활동

단체 : 경기여성연대, 광주여성연대,  
광주시민연대

#### ◆ 홍보물 제작과 배포

일시 : 소식지 제작(년 2회/25호 여름호,  
26호 겨울호)

안내장 제작(수시)

## 상담소에서는...

### ◆ 상담사업(1월~12월/연중)

- 상담방법 : 전화상담, 면접상담, 방문 상담
  - 일정 : 1월~12월(연중)
- 지원사업 :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쉼터연계, 기타 등
  - 일정 : 1월~12월(연중)

### ◆ 교육사업

- 집단상담 성(상담)교육
  - 일정 : 1월~12월(연중)
  -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성인
- 순회 성교육(연중)
  - 일정 : 1월 - 12월
  - 대상 :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성인
-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 일정 : 1월 -12월(연중)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청소년
  - 내용 : 심화 교육
- 성인대상(학부모, 노인, 직장인, 시설 입소자 등)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일정 : 1월~12월( 연중 )
- 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

### ◆ 전문상담원(강사)양성교육

- 6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일정 : 4월~6월 (매주 토)
  - 교육생 : 30명
- 14기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 일정 : 7월-8월(매주 토)

### ◆ 전문 활동가 워크샵

- 성강사 연구반
  - 일정 : 2월~12월 (월 4회, 매주 목요일)
  - 대상 : 성교육전문강사

- 상담원 수퍼비전/사례회의
  - 일정 : 3월 - 11월 (월 2회, 화요일)
  - 대상 : 상담원
- 성교육 인형극공연 연구반
  - 일정 : 2월~12월(월 4회, 화요일 오전)
  - 대상 : 성교육 인형극 전문단원

### ◆ 활동가 보수교육

- 일정 : 1월 - 12월 (연중)
- 대상 : 상담원

### ◆ 홍보사업

- 홍보물 배포(소식지, 안내장 등), 연대 활동/연중
- 매체활용 :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지역신문, 언론매체 등/연중
- 캠페인 활동
  - 일정 : 1월~12월(직접-월2회/기타-수시)
  - 내용 : 성폭력예방, 성평등한 지역문화 확산(부스)거리캠페인
- 성폭력추방주간행사 : 제2회초중고성폭력예방그림그리기대회개최 / 홍보 전시

### ◆ 유관 기관 연대 사업

- 내용 : 성폭력예방 교육, 토론회, 홍보 등
- 연대기관 : 관공서 / 광주시청, 경찰서, 경기도청성폭력상담소, 전성협, 성남 광주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에서는...

### ◆ 공모사업 (프로젝트)

| 1. 이주여성 코칭전문가 양성 사업 |                                                                                                                                                                                           |
|---------------------|-------------------------------------------------------------------------------------------------------------------------------------------------------------------------------------------|
| 사업목적                | 중급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주여성들에게 라이프코칭 기술에 대한 교육과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은 이주여성들에게 대한 코칭상담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정착과정의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출신국을 비롯한 세계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글로벌 여성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사업대상                | 결혼 이주여성 10명                                                                                                                                                                               |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11월                                                                                                                                                                            |
| 사업예산                | 21,000,000원                                                                                                                                                                               |
| 신청기관                | 한국여성재단 (신청완료)                                                                                                                                                                             |
| 2. 이주여성 연극치료사 양성 사업 |                                                                                                                                                                                           |
| 사업목적                |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신체언어와 표상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1차적으로는 가족과 자녀들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적으로는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사업대상                | 결혼 이주여성 10명                                                                                                                                                                               |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11월                                                                                                                                                                            |
| 3. 이주여성 문화학습 동아리 운영 |                                                                                                                                                                                           |
|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춤과 노래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깊이 배우고 연습하여 한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자신감을 확보하도록 한다.                                                                                 |
| 사업대상                | 결혼 이주여성 15명                                                                                                                                                                               |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 사업예산                | 5,000,000 원                                                                                                                                                                               |
| 신청기관                | 광주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발전기금                                                                                                                                                                         |
| 4. 무지개 공부방 운영       |                                                                                                                                                                                           |
| 사업목적                | 생계가 어려워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이주여성의 경우 학교들의 주말 휴교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이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어 어린 자녀들을 토요일 하루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습 및 활동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                                                       |
| 사업대상                | 맞벌이 이주여성의 자녀 15명 (초등 저학년)                                                                                                                                                                 |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 ◆ 자체 사업

| 1. 지구촌 사랑 문화제        |                                                                                                                              |
|----------------------|------------------------------------------------------------------------------------------------------------------------------|
| 사업목적                 | 국적, 민족, 연령, 성별 등을 초월하여 각 나라와 민족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서로 화합하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중시하여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품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사업대상                 | 결혼 이주여성 및 내국인 300명                                                                                                           |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
| 사업예산                 | 50,000 원                                                                                                                     |
| 신청기관                 | 자체 진행                                                                                                                        |
| 2. 이주여성 가족 수련회       |                                                                                                                              |
|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취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                                                                 |
| 사업대상                 | 결혼 이주여성 및 가족 30 여명                                                                                                           |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9월                                                                                                                |
| 사업예산                 | 1,000,000 원                                                                                                                  |
| 신청기관                 | 자체 진행                                                                                                                        |
| 3.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준비 사업 |                                                                                                                              |
| 사업목적                 |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전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 준비사업 추진                                                                  |
| 사업대상                 | 준비위원 및 이주여성                                                                                                                  |
| 사업기간                 | 연 중                                                                                                                          |
| 사업예산                 | 자체 진행                                                                                                                        |
| 신청기관                 | 협동조합 본부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
| 4. 이주여성 통합 자조모임      |                                                                                                                              |
|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들이 단절되어 심리적인 소외감을 겪는 현상을 개선하며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정서적 지지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
| 사업대상                 | 결혼 이주여성 15명                                                                                                                  |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분기별 1회                                                                                                 |
| 사업예산                 | 미 책정                                                                                                                         |
| 신청기관                 | 자체 진행                                                                                                                        |
| 5. 세계인의 날 행사         |                                                                                                                              |
| 사업목적                 | 광주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에 앞장서도록 한다.                                                          |
| 사업대상                 | 결혼이주여성 10 여명 참석                                                                                                              |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 사업예산                 | 미 책정                                                                                                                         |
| 신청기관                 | 광주 시 주최                                                                                                                      |

# ◆ 지원사업

| 1. 교육 지원 |                                                                                                   |
|----------|---------------------------------------------------------------------------------------------------|
| 한국어교실    | 초급반 2Class, 중급반 1Class 등 3개반 운영                                                                   |
| 검정고시 반   |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타 기관 연계                                                     |
| 귀화준비반    | 귀화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기출문제 풀이를 중점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 권리의무교육   | 이주여성들이 가정과 사회 및 직장 등에서 부딪치게 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경험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 진행 |
| 2. 행정 지원 |                                                                                                   |
| 법률 지원    | 이주여성 및 자녀의 체류자격 해결 지원 등                                                                           |
| 행정 지원    | 각 지역 공공기관 관련 행정 지원 등                                                                              |
| 3. 생활 지원 |                                                                                                   |
| 자녀 돌봄 지원 | 주말에도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이주여성들의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지원 등                                                         |
| 의료 지원    | 병, 의원 진료 및 건강검진 동행 지원 등                                                                           |
| 4. 상담 지원 |                                                                                                   |
| 성인대상     | 언어와 사회문화의 생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주여성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별맞춤 심리코칭 지원                                 |
|          |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감정표현이 제한되는 문제로 인해 남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부부코칭 지원                        |
| 아동대상     | 이주여성 자녀들이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신감 부족이나 소외감 등 난관을 스스로 잘 넘길 수 있도록 심리코칭 지원                            |

## 제 6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일시 : 2015년 4월4일 - 2015년 7월 4일(매주.토)
- 장소 : (사)씨움여성회 교육관
- 여성가족부 인정(수료증 발급)

| 번호 | 일 시     | 시 간           | 소요<br>시간 | 강 의 제 목                                   |
|----|---------|---------------|----------|-------------------------------------------|
| 1  | 4/4(토)  | 09:00 - 15:00 | 5        | 한국사회 성문화와 성폭력                             |
|    |         | 15:00 - 18:00 | 3        | 여성주의 상담                                   |
| 2  | 4/11(토) | 09:00 - 12:00 | 3        | 한국여성운동과 인권현장<br>(여성인권운동의 흐름)              |
|    |         | 13:00 - 18:00 | 5        | 나의 성평등, 성인지 점검하기<br>성격유형으로 나를 이해하기        |
| 3  | 4/18(토) | 09:00 - 12:00 | 3        | 섹슈얼리티 이해                                  |
|    |         | 13:00 - 18:00 | 5        |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해석들                        |
| 4  | 4/25(토) | 09:00 - 12:00 | 3        | 미디어 속 성폭력 이해                              |
|    |         | 13:00 - 18:00 | 5        | 성폭력발생 이해, 개념<br>성폭력사건 지원절차                |
| 5  | 5/2(토)  | 09:00 - 12:00 | 3        | 성폭력범죄의 유형 및 대처방안<br>장애인 성폭력               |
|    |         | 13:00 - 18:00 | 5        | 성폭력범죄의 유형<br>(아동학대, 데이트, 직장)              |
| 6  | 5/9(토)  | 09:00 - 12:00 | 3        | 성폭력 관련법의 이해와 사법절차                         |
|    |         | 13:00 - 16:00 | 3        | 성적 소수자 이해                                 |
|    |         | 16:00 - 1800  | 2        | 성매매 실태와 이해                                |
| 7  | 5/16(토) | 09:00 - 12:00 | 3        | 상담의 원리와 실제                                |
|    |         | 13:00 - 18:00 | 5        | 성폭력 피해자 심리이해, 치료                          |
| 8  | 5/23(토) | 09:00 - 12:00 | 3        | 성폭력피해자 의료적 접근                             |
|    |         | 13:00 - 18:00 | 5        | 성폭력가해자 특성과 사례연구                           |
| 9  | 5/30(토) | 09:00 - 12:00 | 3        | 성폭력사건 수사 개입 절차                            |
|    |         | 13:00 - 18:00 | 5        | PTSD치료와 심리극                               |
| 10 | 6/13(토) | 09:00 - 12:00 | 3        | 성폭력 사례다루기                                 |
|    |         | 13:00 - 18:00 | 5        | 성폭력 피해자 상처공감 훈련 및 상담사례워크숍                 |
| 11 | 6/20(토) | 09:00 - 12:00 | 3        | 상담원의 역할과 자세                               |
|    |         | 13:00 - 15:00 | 2        | 성폭력예방 피켓제작<br>(여성폭력추방주간)                  |
|    |         | 15:00 - 18:00 | 3        | 성폭력예방 거리캠페인                               |
| 12 | 6/27(토) | 09:30 - 12:00 | 4        | 성폭력 피해자 지원통합적 접근 현황<br>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견학    |
|    |         | 13:00 - 18:00 | 5        | 성폭력재판 법정방청                                |
| 13 | 7/4(토)  | 09:00 - 13:00 | 4        | 성폭력상담소에서의실무실습운영<br>(일지 작성, 행정, 연계)<br>수료식 |

## 제 14기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 성인대상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성평등 의식 및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평등 문화를 형성하도록 한다.

| 번호 | 일 시              | 시 간           | 소요<br>시간 | 강 의 제 목                                   |
|----|------------------|---------------|----------|-------------------------------------------|
| 1  | 2015년<br>7/11(토) | 09:00 - 14:00 | 4        | 오리엔테이션/성교육이론과 실제                          |
|    |                  | 14:00 - 18:00 | 4        | 성의역사                                      |
| 2  | 7/18(토)          | 09:00 - 12:00 | 3        | 젠더 다양성의 이해                                |
|    |                  | 13:00 - 18:00 | 5        | 나와 페미니즘 그리고 정체성                           |
| 3  | 7/25(토)          | 09:00 - 12:00 | 3        | 10대 성문화/성적 자기결정권                          |
|    |                  | 13:00 - 18:00 | 5        | 성교육방법론/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이해                      |
| 4  | 8/22(토)          | 09:00 - 12:00 | 3        | 성충동과 자위                                   |
|    |                  | 13:00 - 18:00 | 5        | 음란물 특성과 이해                                |
| 5  | 8/29(토)          | 09:00 - 12:00 | 3        | 성기구조이해와 기능                                |
|    |                  | 13:00 - 18:00 | 5        | 임신, 피임/낙태, 성병 바로알기                        |
| 6  | 9/5(토)           | 09:00 - 12:00 | 3        | 강의기법, 강의안 구성                              |
|    |                  | 13:00 - 18:00 | 5        | 강의 교구 제작                                  |
| 7  | 9/12(토)          | 09:00 - 12:00 | 3        | 대상별 강의시연<br>아동, 청소년, 학부모, 직장, 민간기업체, 노인 등 |
|    |                  | 13:00 - 18:00 | 5        |                                           |

\* 주최측 사정에 따라 강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4년 하반기 후원해 주신분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후원금

곽라분이 곽혜영 광남동성당 권수영 권주신 권필재 고은정 구본숙 강천심 길벗여행사 김명순 김민서 김부원 김보라 김상규 김선희 김진 김을미 김철용 김태식 김범수 김효주 김혜경 김후남 나타샤 남기신 남이섬 높은뜻하늘교회 데이지문구 도경에 당티즈영 류복연 리아이엔 마우리씨오 메르씨모 르나 미셀 박남식 박경애 박은영 박정자 박치학 방구들장신부 브러아잉 배기명 배영애 배현덕소미순 소병훈 신기조 신인에 신은경 신용보증기금 심준영 안병원 안상미 안진산 안진화 양경애 이미경 이미정 이선범 이경수 임은화 월드휴먼브릿지 안혜정 유옥란 윤영애 윤영남 윤석남 윤정한 윤조안 윤혜경 이설희 원금자 웬터홍 응웨이투스 장윤경 장형옥 조정자 조경희 조해란 조혜숙 지희순 정인숙 정은주 최미경 최민주 최종례 최혜자 최효례 채석연 하투히언 노래합창단 한강환 한상윤 한승희 한정희 한숙희 한이임 홍린

### ♥♥♥ 후원물품

김경숙 김단비 김민서 김부원 김태식 김민정 김상규 강영주 김범수 김지현 김효주 그리스도대학교수 곽문숙 곽분이 광주경찰서 광주시청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다슬이부모 데이지문구 땡벌 르엡티타 인 만나교회 민영미 마이짱 바기 보김록 보안계장 북부무한돌봄 박경애 배기명 배영숙 신동현 신일태 성남광주하남범죄피해지원센터 아멜리아 이지원 임복희 임미영 오마제 광주경찰서여성보호계 여성가족과 유옥란 이선희 이미순 임은화 윤영애 이은정 이진희 안현숙 오양근 윤혜경 오혜란 이현엄 마 이명희 월드휴먼브릿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전영옥 조정자 조혜림 조나뿔 전복향 조혜린 조미수 장주영 찐티검 정순 최영란 참사랑푸드뱅크 채은병 최효례 참나무그룹원장 황일선 한경민 황성원

### ♥♥♥ 자원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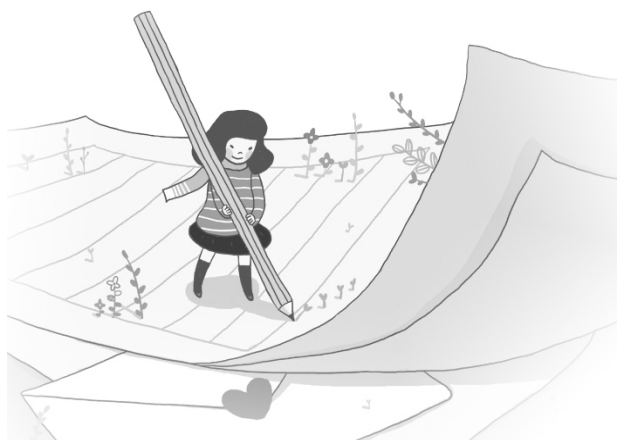
곽예송 강민지 금소은 김건 김민지 김민호 김민효 김현진 김수민 김지운 김근영 김예진 김채린 김상아 김진아 김인환 김유정 김유빈 권다빛 권예림 공서연 남송희 박정민 박정원 박재희 박혜영 배우영 서보은 손준규 손청휘 송민지 신은실 안세리 양소연 양혜미 이소영 이수진 이승연 이은서 이은정 이진영 이윤영 이희주 엄진홍 엄의성 엄수빈 엄수진 임송화 임재의 임형원 유호정 유혜인 윤다혜 윤수미 윤지연 윤지현 이슬 이서은 이주희 이희광 조재훈 정우승 조은영 조민영 장민 전효정 지원준 정승균 조영우 지정은 최용재 최용 한지혜 함보경 허재범 홍승연 한승민

**광수중학교** 김지애 최다영 김서연 박이슬 이가은 이은영 정승균 정희찬 지혜원 양지선 김다인 유예진 임승주 홍유라 홍승택 양송민 장요한 진세준 최상현 김동오 김래형 김영규 정민수 송나영 윤병옥 최종민 정은남 안동민 이봄찬 홍정현 강준혁 안현수 천승훈 이재현 조종현 이상민 안상수 박혜빈

**곤지암중학교** 정수빈 황희수 김윤구 지현수 김도연 송예진 송효진 송현주 임하빈 조아라 문승기 송태양 김영준 김찬욱 이준희 이하연 박슬기 이서찬 김예진 박은정 이윤택 전두성 배준서 오지환 강다희 김다현 김봉구 최준석 박도우 최소민 최민수 박민우 이종현 이준 정한나 임유나 최희원 박세영 정선아 정운서 윤은지 김서희 김선혜 문예진 박소현 박수빈 양수정 유서희 이연희 이영현 정명정 황수영 장현혜 백승연 유세희 강창현 강현석 권선아 김균 김민겸 박경석 정희진 오정훈 유병우 유아름 이성원 이에본 정용 조동현 홍지예 이유정 전유찬 정지옥 제희정 지찬준 이은수 김다빈 윤세빈 정해준 전규민 이지은 원수경 김홍주 우영수 정혜원 김지민 김보희 김하늘 강은아 유진 이광석 황세현 허진호 공환희 강윤비 이효림 힌보경 박은유 최은경 이선도 강계향 김은빈 유희찬 조나영 진혜윤 김호연 김에릴 김상진 엄수민 양은지 장사현 조태형 이준수 이태우 문정우 임현우 한성수 김소연 한서현

**광남중학교** 박예린 손운태 배운택 이종욱 박하은 서명규 임채린 신현진 이태석 김선재 신민규 이현복 정종선 석승현 이현지 박재원 김덕영 김유빈 아나영 최혜란 김은아 원다윤 배경희 이지원 윤지현 전해린 김예원 성예진 박준민 황다연 강이슬 김세현 이기욱 정윤석 정민영 한옥 나유정 홍예진 남금비 정성인 이수빈 김가빈 전지원 김다희 오희진 박다솜 진도훈 박규민 윤종휘 백호근 한승주

**광일중학교** 고평태 김건희 김민기 문진혁 오영진 임현주 정상준 정윤기 주보라 최수빈 최에린 조은영 양하민 황재연 전유진 이훈희 신정섭 윤민우 김시덕 오한열 이승열 조민 한인규 허현 박수빈 정인혜 김현주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자원 활동가 (인증센터로 자원 활동 시간 증명 해드립니다.)

- 상담활동 : 전화 및 면접 상담 활동
- 사무활동 : 자료수집과 우편물 발송, 사무지원, 홍보 활동 등
- 기타활동 : 강의, 법률, 의료지원활동 등

## 회원(CMS) 가입

회원(CMS) 가입으로 회비를 내시면 씨알여성회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씨알여성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10% 할인 혜택과 씨알여성회 정기 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납부하신 후원금액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회원(CMS)가입, 재정후원, 물품후원, 상담활동, 교육활동, 사무활동, 기타 등

## 후원계좌

씨알여성회 : <농협> 355-0024-4685-13 (예금주: 씨알여성회)

상 담 소 : <농협> 221012-51-026615 (예금주: 씨알여성회)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 : <농협> 221012-55-001893 (예금주: 씨알여성회 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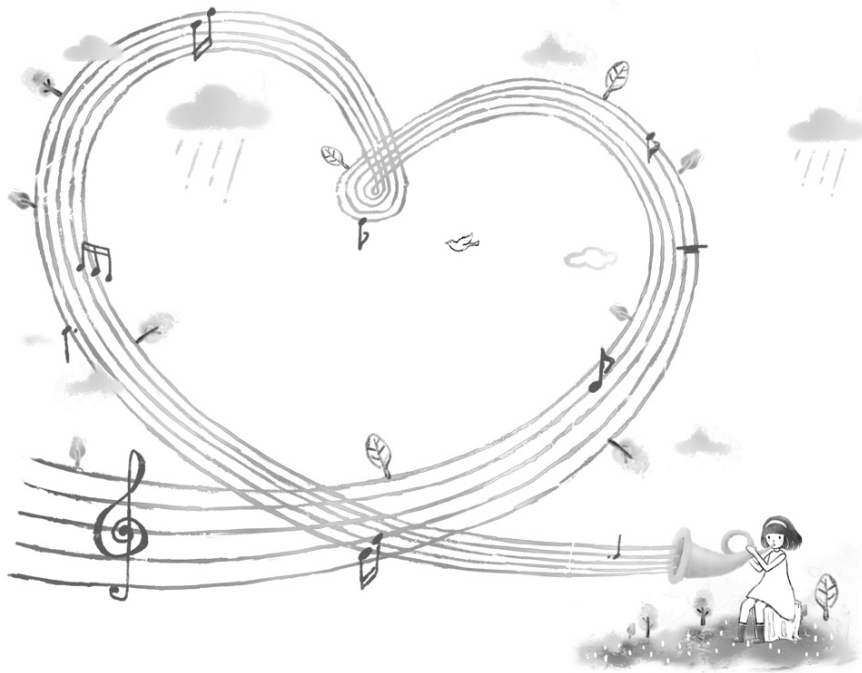
## 씨올여성회에서 하는 일

씨올은 생명의 기본원리로 스스로 자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합니다. 씨올사상은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씨올여성회는 이러한 씨올사상을 이어받아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과 함께 합니다.

|         |                                                                                                                                                                                                                                                          |
|---------|----------------------------------------------------------------------------------------------------------------------------------------------------------------------------------------------------------------------------------------------------------|
| 상담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전화, 면접상담 및 연계사업</li> <li>- 성폭력 가해자 집단 상담 및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진행</li> </ul>                                                                                                                               |
| 교육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및 재교육</li> <li>-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워크샵</li> <li>- 성인대상 성폭력예방교육/직장인, 학부모, 노인, 시설입소자, 상인 등</li> <li>- 여성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한 의식교육</li> <li>- 한글교육 양성평등교육 한국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li> <li>-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li> </ul> |
| 소그룹 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사례 워크샵 모임</li> <li>- 성교육 전문강사 워크샵 모임</li> <li>- 독서 토론회 모임</li> <li>- 성교육 인형극반 모임</li> </ul>                                                                                                                  |
| 연대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여성연대 활동</li> <li>- 경기광주시민연대 활동</li> <li>- 경기여성연대 활동</li> <li>-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활동</li> <li>- 여성단체, 시민 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 활동</li> <li>- 인권단체 및 외국인 노동자 센터들과 연대활동</li> </ul>                                            |
| 여성 인권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인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여론화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li> <li>- 여성정치 참여 및 의정 방청 활동</li> <li>- 취업알선 및 연계</li> </ul>                                                                                     |
| 문화,홍보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올여성회 소식지 발간(연2회)</li> <li>- 씨올여성회 홍보물 제작</li> </ul>                                                                                                                                                            |

## | 부설기관 |

|                                       |                                                                                                                                                                                                                                                                                                                       |
|---------------------------------------|-----------------------------------------------------------------------------------------------------------------------------------------------------------------------------------------------------------------------------------------------------------------------------------------------------------------------|
| <p><b>성폭력 상담소</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법률, 의료적 지원, 쉼터연계 및 수사동행(경찰서, 검찰청, 병원, 법원 등)/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 상담, 성교육</li> <li>-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li> <li>-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교육 인형극공연 및 공연단원 양성교육</li> <li>- 성폭력예방 성평등 확산 홍보 및 캠페인 활동</li> <li>- 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 위탁</li> <li>-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기관 승인</li> </ul> |
| <p><b>광주결혼<br/>이민자<br/>가족지원센터</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상담, 가족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법률, 의료지원, 쉼터연계 및 동행(경찰서, 검찰청, 병원, 법원, 출입국 사무소 등)</li> <li>- 한국어교육, 한국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외국문화이해교육</li> <li>- 가족교육,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 가족캠프 등</li> <li>- 다문화사랑 문화공연, 자국전통문화공연팀, 자조모임</li> <li>- 무지개빛 공부방 운영</li> </ul>                                               |



## (사)씨울여성회 회원(CMS)가입신청서

씨울여성회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성을 보호, 예방, 치유하고, 결혼이민자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 201 -

|       |                                |                                 |                                 |
|-------|--------------------------------|---------------------------------|---------------------------------|
| 후원자명  |                                |                                 |                                 |
| 주민번호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H·P                             |                                 |
| 이 메 일 |                                |                                 |                                 |
| 자동이체  | 예 금 주                          |                                 |                                 |
|       | 은 행                            |                                 |                                 |
|       | 계좌번호                           |                                 |                                 |
| 후원금액  | <input type="checkbox"/> 월 1만원 | <input type="checkbox"/> 월 2만원  | <input type="checkbox"/> 월 3만원  |
|       | <input type="checkbox"/> 월 5만원 | <input type="checkbox"/> 월 10만원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출 금 일 | <input type="checkbox"/> 5일    | <input type="checkbox"/> 25일    |                                 |

상기 본인은 씨울여성회 회원(CMS)가입에 동의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회원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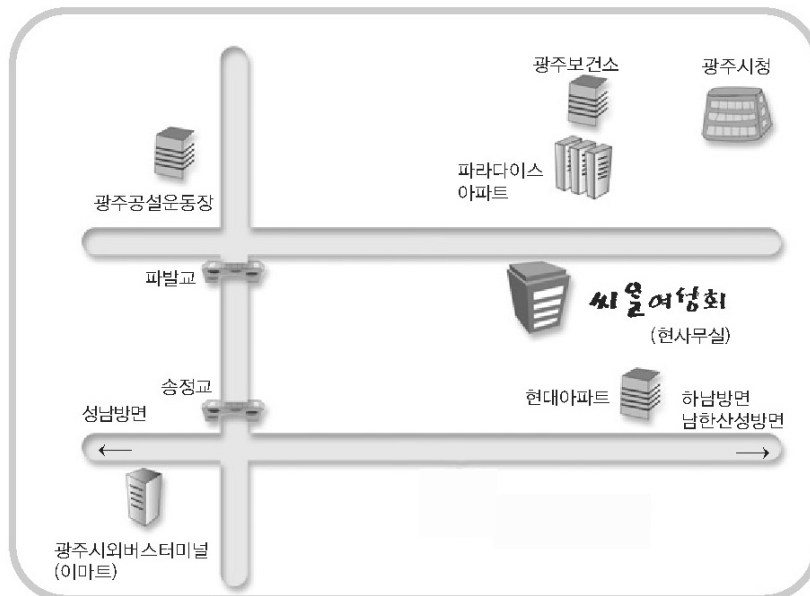
1. 교육수강비 10% 할인이 됩니다.
2. 특강, 워크샵, 보수교육 등에 무료 또는 실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집, 소식지 등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4.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MS 자동이체는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이 없이 지정한 날짜에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이체 되는 안전한 후원방법입니다.

사단법인 씨울여성회 이사장 윤 영 애  
소 장 류 복 연  
센터장 정 인 숙



## 씨을여성회 찾아오시는 길



- ▣ 대중교통 이용 : 강변역(1113, 1113-1)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50분 소요)  
교대역(500-5)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50분 소요)  
모란역(3-1)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30분 소요)

